



고기의 어분 및 대두박류를 대치 사용함으로써 경제적인 사료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업무부장에는 박 승부(건대출)씨를 기용,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농수산 장(長), 차(次)관 경질(更迭)*

정부는 8월 7일 하오 김보현 농수산부장관과 이득룡차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농수산부 장관에 정소영(鄭韶永) 청와대 경제 제1 수석비서관을 농수산부 차관에는 장덕진씨를 임명 발령했다. 김장관의 경질은 식량증산계획을 더욱 강력이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다.

◇점 농수산장관 약력

- ▲대구 출신(41세)
- ▲서울 상대출
- ▲미 워싱턴 주립대출 (경제학 박사)
- ▲청와대 비서관
- ▲재무부 세정차관보
- ▲재무차관. 금융통화운영위원
- ▲청와대 경제 제1 수석비서관

◇장 농수산차관 약력

- ▲춘천 출신(39세)
- ▲고대법과 출

- ▲고시 사법, 행정, 외교, 3과 합격
- ▲재무부 이재국장겸 청와대 경제 제1 수석비서관
- ▲재무부 세정 차관보겸 청와대 의자관리국 수석비서관
- ▲8대의원
- ▲축구협회장겸 대한 체육회 부회장

* 농수산 차관보 임명특사 발령 *

정부는 8월 14일자로 농수산부 식산차관보에 임명특사 관리를 임용발령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었던 윤항열(尹恒烈) 재무부 서기관을 농수산부 농특국장으로 승진발령 했다.

◇임차관보 약력(41세)

- ▲전남 광주 출생
- ▲서울 문리대 졸업
- ▲고시 양과 합격
- ▲서울 및 인천 세관장
- ▲재무부 세관국장
- ▲전매청 기획관리관
- ▲국세청 기획관리 담당관
- ▲경제담당 무임소 장관실 관리관

김영진 축산국장 호주 제 45차 ANZAAS 회의 참석

축산국장 김영진 박사는 8월 13일 부터 17일까지 호주 서부

취 재 부

* 한경 물산 *

고단위 효소 첨가제 「그로우믹스-A」 본포 삼정발효공업사를 경영하던 김 한경(전 삼정발효 대표)씨가 국내 미이용자원을 이용해서 연구 끝에 새로운 제품을 개발 개가를 올렸다. 김씨는 효소제에 단백질 함량을 높임으로서 효소제로서 뿐 아니라 단백질 해결의 이중효과를 가져다 주는 새로운 타입의 단백질 「모비딕」(발명특허 제 3993호)을 생산 시판하게 되었다 한다. 특히 모비딕은 국내 최초로 발명 특허를 획득한 효소 단백질로서



퍼스(PERTH)지방의 오스트레리아 대학에서 개최한 제45차 ANZAAS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했다. 짐국장은 쿠로에(18~23일) 뉴질랜드에 들러 뉴질랜드 정부와 한뉴 옥우시범목장 설치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귀국했다.

인산농원

인산농원은 지난 8월 13일 Cobb 사의 기술진 2명을 초청 4일간에 걸쳐 G.P.S 선발도태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런(Lunn)씨와 미나가와(Minagawa)씨는 굉장히 강력한 도태를 실시한 바 있다.

한국고깃

중앙약품에서 근무하던 오홍우씨를 영업부장으로 특채하였다.

세이버협회

세이버 협회는 8월 4일~8월 5일 부산에서 세이버 협회 월례회를 개최하고 삼일부화장과 대구부화장을 신가입 회원으로 맞아 세이버협회의 결속을 더욱 강화했다. 한편 세이버협회 회원인 봉산농장이 지역사회 발전(양계단지)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농촌 청년지도자로서 8월 15일 농협중

앙회에서 새농민상을 수상받아 세이버 협회의 명성을 떨친바 있다.

신진약국

—양축인의 휴게실 개설—

양축가를 위해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로 봉사하고 있는 신진약국에서는 양축인이면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양축인의 휴게실을 지난 18일에 설치한바 있다. 이날 초청인은 차문희, 류인수, 유수기, 정성조, 천병용, 양창욱 씨이며 장소는 서대문구 진관동 533-1 신진약국옆이며 전화는 ☎ 4111(교) 1533번이다.

형제부화장

세이버협회 회원인 형제부화장의 주소가 변경되었다.

변경주소 : 마산시 회성동 230의 2

한국사료첨가제

한국사료첨가제 공업사는 양돈용 파트렉스 판매와 아울러 북부사료에서 판매하던 비타마인을 인수 그 질을 보강하여 보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양축가에 봉사하리라 한다.

미국사료곡물협회,극동지부장 경질

미국 사료곡물협회는 극동지부장 테일러씨를 유럽지부장으로 발령하고 새 아시아 지부장에 핑커튼박사(가축영양학)를 발령하였다.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는 이들 두사람의 환송, 환영연을 지난 14일 도큐호텔에서 관련인사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또한 테일러씨와 핑커튼씨는 축산잡지 기자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곡물협회는 정책에 관여하기 보다는 기술적인 지원에 역점을 두고 일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축산

피비(PV)사료를 한축사료로 그 이름을 바꾼 한축사료는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양계협회 편집부에서 수고하던 이 성백씨를 특채하였다.

대한양계협회

대한양계협회는 편집부에 정현용(서울대 축산과 졸업)씨와 김수문(전대 축산 가공과 졸업)씨를 특채하였다.